

## 투 더 문 To the Moon

가상화폐에 대한 경험은 그에게 짜릿하기도, 고통스럽기도 했다. 꽤 큰 금액을 지출하여 마련한 가상화폐가 400%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금액으로 치솟은 것은 구입 후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4일 동안 이정도로 오른다면 30일 후엔 몇십 억을 벌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종일 그래프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래프는 바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하염없이 원금을 향해 급락하는 그래프를 목격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한번 급상승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하한가도 일시적일 것이며 초반에 경험했던 그 급상승의 그래프가 언젠가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미련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주식의 장(market)과는 달리 24시간 돌아가는 이 시장은 시시각각 빠르게 반화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틈만 나면 핸드폰을 확인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채팅창에서 요긴해 보이는 정보에 하루에도 수차례 귀가 팔랑거렸다. 바닥을 향해 널뛰던 금액은 원금을 조금 넘긴 상태에서야 내리막길 행보를 멈추었고, 현재는 아슬아슬하게 원래 금액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요동치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그림을 시시때때로 확인하다가 어느덧 이 상황이 종래에는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말 것이라는 섬뜩함이 밀려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3년의 기한을 설정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는 어플을 들여다보는 빈도수를 줄여 나갔다. 지금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슬쩍 슬쩍 확인해 보곤 하고 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2014년도 개인전 <황금 이빨> 이후 7년 만에 장종완 작가에게 전시를 요청하였다. 그는 2인전을 원했고, 최종적으로 을지로에서 가족사진을 의뢰받아 촬영해주는 업을 하고 있던 글래머샷이라는 사진가 팀과 함께 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종완 작가의 회화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상황과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이 구성된 풍경으로 어딘가 익숙하지만 화려한, 그리고 유머러스하지만 시니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행복타령이 들려올 듯 정형화된 모습은 마치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의 모습은 과장된 광고처럼 보이곤 했다. 혹은 야생 동물들의 부자연스러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존재하는 위태롭거나 기괴한 모습과 행태가 묘한 분위기를 발산하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온 장종완이 글래머샷의 키치함에 이끌린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초현실적이고 화려한 배경과 과장된 포즈, 스케일의 확장과 축소 등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진 이미지는 비현실적인 몽환의 이미지이다. 처음부터 의도치 않았다고 하지만, 글래머샷의 독특한 스타일 덕분에 틀림없는, 가족 사진 의뢰를 하는 고객들의 구성은 고전적 가족의 모습보다는 좀 더 다양화된 모습이다. 즉 반려동물, 특정 커뮤니티, 친구, 커플, 덩크족 부부 등이 등장하면서 보다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현대인의 단면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번 전시의 모티브로 삼은 글래머샷의 가상화폐 체험기는 특히 장종완 작가가 그리는 독특한 스타일에서 풍기는 신기루적인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 <투 더 문 To the Moon>은 앞서 서술한 글래머샷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시이다. 가상화폐 용어이기도 한 '투 더 문'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램은 신화적 허상과 현실 사이에서 드러나는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 외에도 "떡락", "그래프가 지하실로", "운전을 거칠게 한다", "장에 탑승하다" 등의 다양한 은어들과 이를 둘러싼 심리전으로 인해 생성되는 감정의 변화 등이 전시 공간 속에서 은유적으로 시각화된다. 특히 전시장 안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둥근 프레임의 렌티큘러 간판 작업 <나이젤 Nigel (글래머샷)>은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달 표면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서 입체화된 얼굴은 관람객이 어디에서 바라보든 눈을 마주친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등장하는 대마법사의 실체를 숨기는 표면과도 같은 이 이미지의 뒤편에는 끝없이 바닥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자리한다(<언더락 under rock (글래머샷)>). 이를 마주한 벽면에는 오즈의 마법사가 머무는 에메랄드 성이 보이는 풍경이 펼쳐지고 화면 곳곳에 환상적인 모습으로 별자리를 만들어내는 돌고래 이미지 <팬데믹 별자리5 Pandemic Constellation (장종완)>, 실체가 없는 '좋아요'에 목마른 온라인상의 달콤한 반응에 목메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딸기 이미지 <좋아요, 싫어요 Like, Hate (장종완)>, 달밤에 누워서 신음하는 나무 등치의 청승맞은 초상 <달빛 보습 Moon Light Moisture (장종완)> 등이 글래머샷이 완성시킨 가족의 감정이 묻어있는 사진들과 어우러져 있다. 사실 렌티큘러의 이미지는 1902년에 제작된 단편영화 '달나라 여행'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는데, 이번 전시 제목 To the Moon처럼 달을 향하여 질주하던 자동차가 벼랑 끝을 통과하여 도달할 곳이 매우 비극적임을 암시하는 벽면 설치 <Moon Drive2 (글래머샷)>를 매개로 이 모든 현상의 현실적 결말을 인지하게 한다. 작가들은 이를 현대의 신화를 좇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 공간은 예술가들의 공간이다. 그들은 늘 들뜬 모습으로 환상과도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전시 설치를 마무리하며 장종완 작가가 말했듯, 이 들은, 그리고 다른 많은 작가들은 신기루를 그리고자 하고, 찾아내고, 이야기하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오히려 즐기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이 공간은 현실적인 걱정으로 시니컬해진 마음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한껏 기대하고 경험하는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공간이기도 하다. 가늘고 위태로워 보이는 나뭇가지에 걸친 사진 <오! 힙스터 Oh! Hipster (글래머샷)>를 촬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 유치하면서도 즐거운 그들의 작태!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